



#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6강. 예약제작과 천하의 치란





**Q. 예약제작은 누가 하였을까?**



『論語(논어)』「季氏(계씨)」

孔子曰，天下有道，則禮樂征伐，

공 자 알 천 하 유 도 즉 례 악 정 벌

自天子出，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

자 천 자 출 천 하 무 도 즉 례 악 정 벌 자 제 후 출



**예란,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금하는데 있다**



**화란 = 혼란**



故朝觀之禮，所以明君臣之義也。聘問之禮，所以使諸侯相尊敬也。

고 조 근 지 례 소 이 명 군 신 지 의 야 빙 문 지 례 소 이 사 제 후 상 존 경 야

喪祭之禮，所以明臣子之恩也。鄉飲酒之禮，所以明長幼之序也。

상 제 지 례 소 이 명 신 자 지 은 야 향 음 주 지 례 소 이 명 장 유 지 서 야

昏姻之禮，所以明男女之別也。

혼 인 지 례 소 이 명 남 녀 지 별 야

夫禮禁亂之所由生，猶坊止水之所自來也。

부 례 금 란 지 소 유 생 유 방 지 수 지 소 자 래 야

조근의 예는 군신의 의를 밝히는데 쓰이며, 빙문의 예는 제후로 하여금 서로 존경하는데 쓰인다. 상제의 예는 신하된 자와 자식된 자의 온정을 밝히는 것이고, 향음주의 예는 장유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고, 혼인의 예는 남녀의 구별을 밝히는 것이다. 무릇 예란 화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금하는데 있으니, 바로 제방으로 홍수의 범람을 막는 것과 같다.

『예기』 「經解(경해)」



**예를 통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예약은 반드시 영인이 제작해야 한다



## 주공

주왕조를 세운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가.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를 제정해 제도문물을 창시했다.



武王崩，成王幼弱，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

무 왕 붕 성 왕 유 약 주 공 천 천 자 지 위 이 치 천 하

六年，朝諸侯於明堂，制禮作樂，

육 년 조 제 후 어 명 당 제 례 작 락

頒度量，而天下大服。

반 도 량 이 천 하 대 복

무왕이 붕어하고 성왕이 유약하니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렸다.  
6년간 명당에서 제후를 조회하고, 예악을 제작하고, 도량형을 반포하니  
천하가 크게 복종하였다.

『예기』「明堂(명당)」





# 유과 생인 주공



# 은나라와 주나라의 예

殷人尊神，率民以事神，先鬼而後禮，

은 인 존 신 솔 민 이 사 신 선 귀 이 후 례

先罰而後賞，尊而不親。

선 벌 이 후 상 존 이 불 친

其民之敝，蕩而不靜，勝而無恥。

기 민 지 폐 탕 이 불 정 승 이 무 치

周人尊禮尚施，事鬼敬神而遠之，近人而忠焉。

주 인 존 례 상 시 사 귀 경 신 이 원 지 근 인 이 충 언

은나라 사람은 신을 높이니, 백성을 거느려서 신을 섬기고 귀신을 먼저 하고 예를 뒤에 하였다.

주나라 사람은 예를 높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숭상하니,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고 사람을 가깝게 하면서 충성하였다.

『예기』「表記(표기)」



# 제왕이 가져는 의미

天無二日，土無二王，國無二君，  
천 무 이 일 토 무 이 왕 국 무 이 군

家無二尊，以一治之也。  
가 무 이 존 이 일 치 지 야

천하의 임금을 천자라고 한다. 제후를 조회하고 직책을 나누어 파견하며 정사를 돌보고 공이 있는 자를 임용하니, 나 일인이라고 칭한다.

『예기』 「喪服(상복)」



# 천사의 업무와 위상

君天下曰天子。

군 천 하 왈 천 자

朝諸侯，分職授政任功，曰予一人。

조 제 후 분 직 수 정 임 공 왈 여 일 인

하의 임금을 천자라고 한다.

제후를 조회하고 직책을 나누어 파견하며 정사를 돌보고 공이 있는 자를 임용하니, 나 일인이라고 칭한다.

『예기』「曲禮下(곡례하)」



非天子 不議禮 不制度 不攷文

비 천 자 불 의 예 불 제 탁 불 고 문

雖有其位 苟無其德 不敢作禮樂焉

수 유 기 위 구 무 기 덕 불 감 작 예 낙 언

雖有其德 苟無其位 亦不敢作禮樂焉

수 유 기 덕 구 무 기 위 역 불 감 작 예 낙 언

천자가 아니면 예에 대해 논하지 않고, 법도를 만들 수 없고, 문자를 교정할 수 없다.  
지금 천하가 통일되어 수레 자국이 서로 같고 문자가 서로 같으며 행위의 법도가 서로 같다.  
비록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해도 성인의 덕이 없으면 감히 예악을 제정하지 않고, 비록 성인의 덕을  
지니고 있어도 천자의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 또한 예악을 감히 제정하지 않는다.

『中庸(중용)』



예는 **천자**만이 **재정**할 수 있다

大夫強而君殺之，

대 부 강 이 군 살 지

義也。

의 야

대부가 강하면 그를 죽이는 것은 의다.

『예기』 「郊特牲(교특생)」



## 수기치인(修己治人)

내 몸을 닦아 남을 교화(教化)함.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

# 예약을 중시하는 이유



# 예의 기본정신



# 계씨에 대한 **공자의 비판**

**팍일무**

천자의 제향 때 쓰이는 일무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

공 자 위 계 씨 팔 일 무 어 정

是可忍也，孰不可忍也。

시 가 인 야 숙 불 가 인 야

공자께서 季氏를 비난하며 말했다. "자신의 집 뜰에서 팔일을 추게 하다니, 이런 짓을 감히 저지른다면 앞으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논어」 「八佾(팔일)」



## 온유존후(溫柔敦厚)

부드럽고 온화(溫和)하며 성실(誠實)한 인품(人品)이나 시를 짓는 데 기묘(奇妙)하기보다 마음에서 우러난 정취(情趣)가 있음을 두고 이르는 말

「예기」 「經解(경해)」



深 疾  
심전이란?



# 무악 (舞樂)

춤출 때에 아뢰는 아악(雅樂)



# 예와 무악



禮에서 **樂** 이란?



기와 노래와 춤



**‘악’** 가운데 **‘예’**



**파일무**를 **추다**는 것의 의미



# 게임의 참여 행위



# 참월(僭越) 행위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차례를 뛰어넘음



심질

[深疾]

깊이 미워함



예약은  
**천자** 에서만 나와야 한다